



전남축구협회 U14대표팀, 세리에A 유벤투스 전지훈련 캠프
전남축구협회 U14대표팀이 이탈리아 세리에A 명문팀 유벤투스 전지훈련 캠프를 마쳤다. 전남축구협회에 따르면, 신정식 회장을 필두로 한 전남축구협회 U14 대표팀의 25명 선수단이 지난 14일 출국해 23일까지 8박9일 일정으로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트레이닝캠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전남체육회 제공

GS칼텍스 오지영, 페퍼저축은행 합류

“팀 성장에 기여할 것”...GS에 2024~2025 신인 지명 내줘



베테랑 리베로 오지영(34)이 페퍼저축은행에 합류한다. 페퍼저축은행은 27일 “GS칼텍스 오지영을 받아오고 2024~2025 시즌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내주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고 27일 공식 발표했다. 2006~2007시즌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4순위로 한국도로공사 유니폼을 입은 오지영은 KGC인삼공사, GS칼텍스를 거쳤다. 국가대표로도 활약하며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은메달, 2020 도쿄올림픽 4강을 이끌었다. 오지영은 “시즌 중 트레이드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페퍼저축은행으로 오게 돼 기대가 된다. 페퍼저축은행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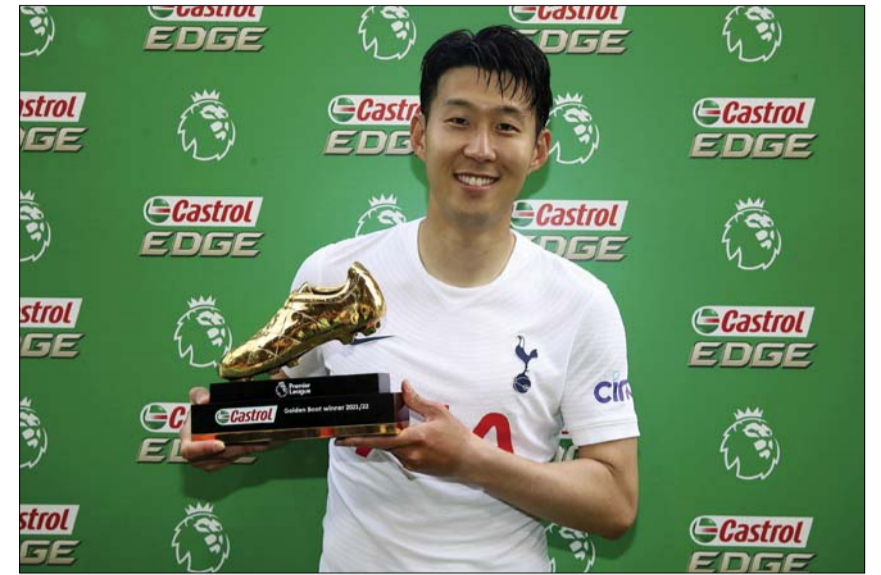
밝혔다. “GS칼텍스 구단에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경수 페퍼저축은행 감독대행은 “신생 구단의 장기적인 팀 빌딩 관점에서 베테랑 리베로의 영입을 추진하게 됐다. 오지영의 경험이 우리 팀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지영이 잘 적응해 팀의 도약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보였다. 최하위에 머물며 아직 시즌 첫 승을 신고하지 못한 페퍼저축은행은 오지영의 합류로 분위기 전환을 바라고 있다. 오지영은 28일 ‘새 홈 구장’인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리는 IBK기업은행과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다. /조일상 기자

손흥민 ‘올해 EPL 최다 득점’ 3위

손흥민 현 시즌 3골 · 전 시즌 15골
해리 케인 25골 · 이반 토니 19골

손흥민이 2022년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최다 득점 순위 3위에 올랐다. 손흥민은 올 해 EPL에서 18골을 넣어 이번 시즌 득점 선두 ‘괴물’ 앨링 홀란(맨체스터 시티)과 동점을 기록했다. 손흥민(토트넘)은 EPL에서 이번 시즌 아직 3득점에 머물러 있지만 올해 18골을 넣었다. 이번 기록에서 지난 시즌 23골을 기록하며 EPL 역사상 첫 아시아 선수 득점왕에 오른 위력을 과시했다. 올해 득점을 가장 많이 한 선수는 ‘손케 듀오’ 해리 케인(토트넘)이었다. 그는 올해에만 EPL에서 25득점을 기록하며 최다 득점자로 이름을

올렸다. 케인은 지난 시즌 초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을 타진했지만 실패했다. 그 뒤 부진을 겪었지만 안토니오 콘테 감독 부임 이후 컨디션이 되찾았다. 이번 시즌에도 여전히 좋은 기량을 이어가고 있다. 2022~2023시즌 13골을 넣으면서 득점 순위 2위다. 이반 토니(브렌트포드)가 올해 EPL 득점 순위 2위에 기록됐다. 토니는 이번 시즌 11골을 넣으며 득점 순위 3위에 자리 잡았다. 그의 올해 골을 모두 더하면 19골이 된다. 앨링 홀란(맨체스터 시티)은 18골을 기록하며 손흥민과 함께 공동 3위에 올랐다. 홀란은 올해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맨체스터 시티와 계약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22일(현지시간) 영국 노리치의 캐로 로드에서 열린 노리치 시티와의 2021-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최종 38라운드 경기를 마치고 받은 골든 부츠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하면서 EPL에 뒤늦게 합류했다. 그러나 올 시즌에서 18골을 몰아넣으며 올 시즌 득점왕 가도를 달리고 있다. /뉴스

3년만에 ‘2022 전남체육인의 밤’ 개최...화합 한마당

전남도지사상·전남체육회장상 등 시상...‘새출발 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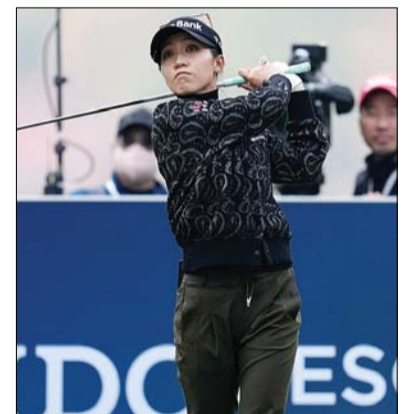


전남도체육회가 2022년 전남체육인 밤 행사를 통해 올 한 해 전남체육의 발전을 위해 땀방울을 흘린 체육인들이 치하하며 위로·격려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전남체육을 빛낸 체육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2년 전남체육인의 밤’이 26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2022년 전남체육인의 밤은 전남체육 관계자들의 노고 위로 격려 및 친목도모, 전남체육 진흥 유공자 발굴 시상을 통한 자긍심 고취, 제104

회 전국체육대회 성공개최 다짐, 민선 2기 체육회장이 취임하게 될 2023년 전남체육의 진흥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최정훈 도의원의원, 최기동 전남도체육회 회장직 무대행, 송진호 제38대 전남도체육회 당선인, 시·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행정기관직장명 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2~2023 전

남방문의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2022년 한해 전남체육 활약상 등 영상을 시청하고 이어서, 도지사 표창 및 전남체육회장 표창이 진행됐다. 도지사 표창은 오수일(영암군비축협회장), 김철문(전남력비협회 총무이사), 조민호(전남씨름협회 경기부장), 이경승(함평군배구협회 전무이사), 김승남(장흥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최순인(강진군체육회 사무팀장), 김성현(해남고 펜싱지도자), 김연지(해제중 태권도 코치) 등 총 43명중 8명이 대표로 시상했다. 전남체육회장 표창 총 70명 중 신현상(영암군배구협회장), 강수영(담양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이학운(문태고등학교 지도자), 유소영(고흥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김효관(전남축구협회 대외협력이사), 김지원(보성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김동성(무안군유소년클럽팀아구단 감독), 강우림(곡성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8명이 대표로 나서서 시상했다. 아울러, 보해장학재단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보해장학재단은 400만원을 체육성금으로 기탁해 총 8명이 장학생으로 선정됐다.

리디아 고,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고진영 5위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가 올해 마지막 발표되는 여자 골프 세계랭킹에서도 당당히 1위에 올랐다. 27일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랭킹에서 리디아 고는 지난달 말부터 1위를 지키고 있다. 리디아 고는 오는 30일 명동성당에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아들 정준씨와 결혼식을 올린다. 빌리 코르다(미국)와 아타야티파 풀(태국)이 각각 2, 3위를 수성했다. 호주교포 이민지는 4위, 고진영(27)은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5위를 달리고 있다. 전인지(28)는 8위, 김효주(27)는 9위에 이름을 올렸다.

생활속 물 절약 함께해요!

양변기에 물 채운병 넣기

설거지 전 미리 휴지로 닦기

양치컵 사용하기

한 번에 모아서 빨래하기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